

## 쓰레기 산이 된 먹거리

얼마 전 뉴스에서 충남 논산에 생긴 쓰레기 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 년 전에 폐기된 1800t 분량의 쓰레기가 주민 제보로 보도된 것입니다. 유통기한 지나 폐기된 CJ의 식료품들이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하죠. 불법 폐기업체가 지역의 공터에 쓰레기 산을 만들어놓은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새삼 눈길을 끌었던 것은 판매되지도 않고 버려지는 과일 생산 음식물 폐기 문제를 환기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시 비슷한 때에 보내주셨던 사이언스 월든 팀의 <똥본위화폐> 프로젝트의 진행 내용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꿀’이라는 기호화폐를 과일 생산품을 소비에 사용한다는 기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지구의 한쪽에서는 이렇게 남는 음식이 폐기되고 썩어가지만 작년 기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인구는 8억 1천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수준이라고 하죠.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자주 같이 읽는 책인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는 “소는 배를 채우고 사람은 굶는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고기를 위해 소는 옥수수 사료를 먹으며 비육되지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비싼 옥수수 값을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글러는 글로벌한 차원의 구조적 불평등이 기아의 원인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세계 곡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은 곡물 가격을 떨어뜨리느니 과일 생산된 먹거리를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체계적인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는 동물에게 곡물을 사료로 먹여 고기 상품을 만들어내죠.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고기를 비롯해 많은 음식물이 과일 생산되고 결국 폐기처분되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산 쓰레기 산의 경우처럼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기후위기가 기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번 기후난민을 다룬 글에서 기후위기가 난민의 발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빈곤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기구들은 기아 문제의 직접적인 첫 번째 이유를 ‘분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기후변화가 정치적 분쟁을 넘어 기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가뭄과 홍수로 기근의 늪에 빠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 분쟁 지역인 시리아는 지난 십년 간 6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발생시킨 지역입니다. 시리아 문제는 직접적으로 아사드 독재 정권에 대한 ‘아랍의 봄’ 민주화 투쟁이 내전으로 비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낳은 복합적 상황 중에는 기후변화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를 강타한 가뭄 때문에 밀 생산량이 급감하자 주로 러시아로부터 밀을 수입하던 시리아에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난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의 기후변화는 단순히 과거와는 다른 계절 감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토대로 삼고 있는 대지와 바다, 숲을 파괴함으로써 식량 자원의 생산을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의 토지가 사라지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경작지의 유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양 온난화는 산호초를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먹는 해양 식량 자원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침수되고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면 농업 용수의 부족으로 농업 생산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면 토양이 산성화되고 수자원 오염이 심해집니다. 이는 병충해 발생을 증가시켜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

다고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에 대한 피해는 점점 더 많은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지역들에서는 시리아의 경우처럼 기후변화와 잠재적 사회문제가 결합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식량 부족 문제는 오로지 아프리카의 극빈국들만이 예외적으로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쟁지역에서 목격하는 사회의 불안정성은 식량 수급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동아시아와 한국의 식량 안보문제도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보다 국토가 넓은 중국과 일본은 최근 역대 최악의 폭염과 폭우, 홍수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겪는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 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농지가 사라지고 먹거리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식량 안보 문제에서 한국 사회 역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다면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그 타격이 일차적으로 전달되고 사회의 잠재적 갈등이 드러날 공산이 큼니다. 우리 사회 역시 기후위기가 가중시킬 불평등 문제를 먼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매년 우리는 뉴스에서 특히 여름철의 폭염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경험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쪽방에 기거하는 노년의 도시 빈민들에게 폭염은 외출을 꺼리게 하는 날씨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타의 사회적 문제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연계의 탈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온 사회의 모순과 결합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개인들의 올바른 생활 습관 안내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존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해보는 정치적 의제를 꺼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똥분위화페> 프로젝트가 기본소득과 과잉생산물을 짝짓기한 방식의 토대가 된 아이디어처럼요.